

'우한 폐렴' 확진자 급증에 우한시 '봉쇄'



▲ 신종 폐렴 환자를 격리 치료하는 중국 우한의 진인탄 병원에서 방역복을 입은 의료진이 환자를 병원으로 옮기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인 '우한 폐렴'의 발병지인 중국 우한시에 한시적 봉쇄령을 내려졌다. 확진자가 급증하고,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내린 조치다.

지난 23일 우한시 위생당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우한의 버스, 지하철, 페리 및 장거리 여객 운송이 중단된다고 발표했다. 우한 폐렴 확산을 막기 한시적으로 봉쇄령을 내린 것이다.

우한시는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이 제지를 무시하고 공공장소에 들어오면 관련 주관 부문이 법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

또 전날부터 시를 드나드는 차량의 탑승자를 대상으로 체온을 측정해 열이 나는 사람은 검사를 위해 바로 지정 병원으로 보내고 있다. 우한시는 발열 증상이 있는 의심 환자를 수용하기 위해 7개 병원에서 침대 3천400개를 준비했다. 위생당국은 이날 오전 현재 중국 내 우한 폐렴 확진자는 549명, 사망자는 17명이라고 밝혔다

앞서 중국 정부는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인 '우한 폐렴'과 전쟁을 선포했다. 아직 명확한 감염 경로와 원인조차 밝혀지지 않은 상태지만, '우한 폐렴'을 차상급 전염병으로 지정했다. 대응 조치는 최상급으로 높이면서 사실상 총력 대응 체제에 나선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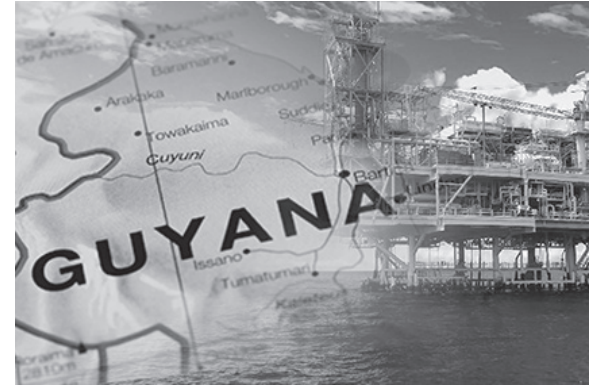
이날 현재 우한 폐렴 확진자는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미국, 사우디, 싱가포르, 베트남에서도 발생했으며 러시아, 멕시코, 브라질, 콜롬비아 등에서도 의심환자가 발생한 상황이다.

남미 가이아나, 원유 수출국 데뷔

남미 소국 가이아나가 원유 수출국에 합류했다. 지난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가이아나산 원유 100만 배럴가량을 실은 수에즈맥스급 유조선이 지난 19일 미국 텍사스주의 정유공장을 향해 출발했다. 미국 엑손모빌이 미국 헤스, 중국해양석유와 함께 지난달 원유 생산을 개시한 후 이번에 처음 출항한 것이다.

가이아나에 유전이 처음 발견된 것은 2015년이였다. 엑손모빌 컨소시엄은 지금까지 60억 배럴 이상의 원유가 매장된 유전 15개를 발견했다. 엑손모빌은 궁극적으로 가이아나 해안에서 하루 75만 배럴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체 매장량이나 생산량은 많은 편이 아니지만 가이아나 인구가 80만 명에도 미치지 않기 때문에 1인당 매장량은 세계 최대 수준이다. 아직 개발 초기이기 때문에 유전이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도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가이아나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86%로 예상했다. 전 세계 성장률 전망치 3.3%의 26배이며, 중국 성장률(6%)의 14배이다. 하지만 원유 수출 개시와 함께 '석유 대박' 실현이 눈앞에 다가왔지만 자원의 '축복'이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마이클 로스 UCLA 교수는 최근 BBC 스페인어판에 "돈이 곧바로 정부로 들어가면서 정부가 점점 막강해지고 시민의 민주적인 요구를 외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석유가 국내 혼란으로 이어진 사례로 동티모르와 적도 기니를 들었다.

그는 "가이아나에는 돈이 쓰나미처럼 밀려올 것"이라며 "가이아나가 그 돈을 잘 관리하고 정부가 민주적인 운영을 통해 부패를 막는다면 비슷한 상황에 놓였던 다른 나라들과 달리 우수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스서 사상 첫 여성 대통령 탄생

그리스에서 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 탄생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리스 의회는 전날 재직 의원 294명 가운데 찬성 261표로 에카테리니 사켈라로풀루(63·사진) 최고행정법원장 겸 국가협의회 의장을 차기 대통령으로 승인했다. 반대는 33표였다.



사켈라로풀루 의장은 오는 3월 13일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 그리스 역사상 여성이 대통령에 선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통적으로 여성이 정계 고위직에 진출하는 사례가 드문 그리스에서 첫 여성 대통령 탄생은 신선한 충격이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현 내각도 18개 장관 가운데

데 여성은 1명에 불과하다.

사켈라로풀루 의장은 평생 사법부에서 봉직한 정통 법관으로 국민적 존경과 지지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법과 헌법 전문가로 알려진 그는 이미 내각 자문기구인 국가협의회 첫 여성 의장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다.

사켈라로풀루 의장은 의회 승인 투표 직후 취재진에 경제 위기와 기후 변화, 이주민 등을 3대 정책 과제로 꼽고 국제적 협력을 끌어내고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그리스에서 대통령은 헌법상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지만 대체로 상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통령은 총리가 후보자를 지명하고 의회가 이를 승인하는 간선제로 선출된다. 임기는 5년이며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좋은신문 알찬신문 '타운뉴스'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개인의 작은 권리 하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인간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재미있고 유익한 기사와 한인들의 이민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싣고 격조높은 기사와 광고만을 게재하는 '타운뉴스'와 함께 신문을 만들어 나갈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광고영업직 0명**

제출서류 :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E-mail: info@townnewsusa.com